



땅빈대

흰피를 뚝뚝 흘리며 울부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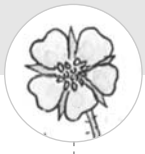
草

오 늘 오랜만에 노동을 좀 했다. 땀벌이 조금 수그러들었으니 슬슬 가을 배추나 좀 갈아먹을까 해서 밭고랑 두 개를 갈아엎었다. 그동안 이 선생님이 매일같이 퍼다 나른 ‘똥 + 짬밥’ 썩은 것들을 흙과 잘 섞어 밭고랑을 만든 것이다. 삽 든 김에 일한다고 여름내 내버려 두었던 풀들을 싸그리 뽑아 밭고랑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하여 퇴비 무덤을 만들었다.

풀들을 걷어 내면서 보니 흰 피를 뚝뚝 흘리며 울부짖는 것이 있었다. 개체 수도 꽤 되었는데, 여기 그린 ‘땅빈대’라는 놈이다. 잎사귀는 그런 대로 보이는데 꽃은 돋보기를 들이대어야 겨우 관찰할 수 있는 작은 꽃이다. 이것은 식물 크기의 세 배 정도는 될 것이다. 아마 땅빈대를 이렇게 상세히 그린 도감은 없을 것이다. 이놈은 이름 그대로 땅에 바짝 붙어서 기어다닌다.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풀들 중 이끼류 빼고는 땅에 가장 바짝 붙어 자라는 풀이다. 어쩌나 찰싹 붙어 있는지 발로 팡팡 밟아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야. 그런 만큼 줄기가 질기기도 하지. 줄기를 뚝 끊으면 흰 즙이 뚝뚝 떨어진다. 흰 즙을 내는 대부분의 풀들이 그렇듯 이것도 벌레 물린 데나 상처에 바르면 쉽게 아문다.

땅빈대는 정말 희한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풀이다. 먼저 이놈은 다른 풀과는 달리 일종의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 위에 그린 것은 땅빈대의 선단부를 그린 것이라 잎사귀가 무성해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잎보다 줄기가 더 무성하다. 그런데 이 줄기가 땅색인 데다 땅에 바짝 붙어 나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야. 게다가 잎새 가운데에 고동생 반점이 있으니 더 헛갈리지. 이놈은 방사상으로 줄기를 뻗은 뒤 각 마디마다 또 줄기를 사방으로 뻗으니 잘 자란 놈을 뽑아들면 마치 돛자리 방석을 보는 듯하다. 아무리 길게 뻗어야 직경 30~50센티를 넘지 않는다. 나는 땅빈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식물의 능동적 방어기제를 확인한다. 사람이 잘 다니는 길가에 난 땅빈대는 아주 납작하게 땅에 붙어 나지만, 사람의 발길이 뜬한 공터에 난 놈은 줄기가 제법 하늘로 향해 있더라구. 그러니까 이놈들이 땅에 바짝 붙어 나는 것은 특별히 땅이 좋아서라기보다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이지.

땅빈대의 꽃은 아마 희한한 꽃 콘테스트에 나가면 틀림없이 상위 입상을 할 것이다.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자세



히 보면 이게 도대체 꽃인지 뭘지 알 수 없는 형태를 하고 있어 어리둥절하다. 보통으로 생긴 원추형 꽃기둥 중간에 마치 뒷박같이 생긴 씨방을 달고 있는 거야. 점선 원 안에 자세히 그려놓았다.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놈들이 마디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고 들여다보지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 요리조리 들여다보다가는 그냥 짜증을 내고 던져버리기 일쑤이지. 땅빈대는 장준근 씨의 도감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용도라든지 생태 따위가 아직 제대로 연구된 풀이 아닌 모양이다.

그동안 야생초에 관심을 기울여 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하루빨리 정부는 국책 차원에서 ‘야생초 연구소’를 건립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나 화

장품회사 등지에 야생초 연구소가 있는 것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존재 이유가 이윤 동기에 있으며 연구 목적도 제한적이므로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복지증진이라는 큰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야생초는 그야말로 천지에 지천으로 깔린 보물과도 같다. 이러한 보물들을 단순히 소 여물이나 관광용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어쩌면 야생초 속에서 현재 고갈되어 가는 온갖 천연자원들의 대체물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난치병을 위한 약과 대중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도 모두 야생초 속에 있다. 이런 곳에 투자를 아니 하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한단 말인가? 🍎



1955년 서울생.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 사회과학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1년 6월 8일 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극이었다고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널리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서른이던 1985년 마흔네 살이 될때까지, 13년 2개월 동안의 황금 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다. 감옥 안에서 야생초 화단을 만들어 100여종에 가까운 풀들을 심어 가꾼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 생태공동체운동가로 활동중이며(‘생태공동체운동센터 www.commune.or.kr), 저서에 『야생초 편지』(도솔, 2002), 『백천간두에 서서: 공동체 시대를 위한 명상』(사회평론, 1992), 『꽃보다 앓다운 사람들: 양심수 황대권의 유럽인권기행』(두레, 2003)와 역서 『가비오파스』(말, 2002)가 있다.